



생생리포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III.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
: 연말정산과 카드 공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최봉 cbong@si.re.kr

생생리포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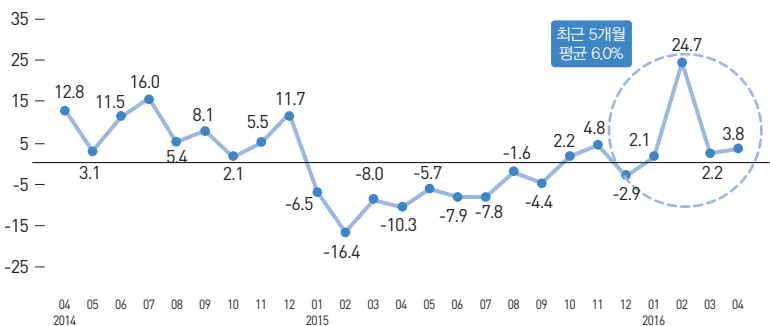
* 이 생생리포트는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14호를 인용한 것입니다(최봉, 2016,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14호).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증가, 고용은 침체

2016년 4월 서울의「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

- 서울의「산업생산지수」는 2016년 들어 4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
- 2016년 4월은 전년 동월보다 3.8% 증가하는 등, 최근 5개월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6.0% 성장하며 회복세를 유지
- 2월(24.7%)의 높은 증가율은 전년 동월 -16.4%로 급감했던 것이 원인
- 서울과 달리 전국 제조업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월을 제외하고 3개월 모두 감소
- 부문별로 중간재는 15.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소비재도 2.7% 증가하였으나, 자본재는 -0.4%로 소폭 감소
- 최근 5개월 동안 중간재가 2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0.5%, 1.7% 늘어나는 등 모두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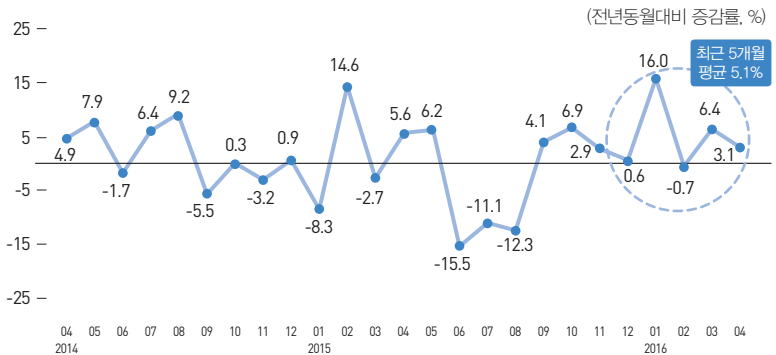
①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ρ)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말 또는 3월초) 시에는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①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제조업)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4월에 전년 대비 3.1% 성장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6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3.1% 성장하는 등 최근 5개월간 평균 5.1% 증가
 - 2월 -0.7%를 제외하고 전년 동월보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 최근 5개월간 백화점 판매액은 평균 1.6%, 대형마트 판매액은 평균 8.7%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1월 10% 이상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대형마트 판매액은 꾸준히 높은 성장세 유지
 - 전체적으로 2016년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백화점보다 대형마트와 대형소매점의 상승세가 전체 성장을 주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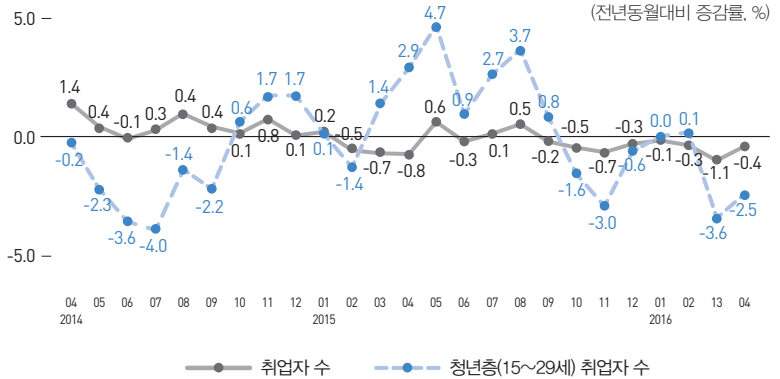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

전체 「취업자 수」는 2015년 가을 이후 변동폭이 작으나, 청년층은 월별로 큰 차이

- 2016년 4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한 508만 명
 - 「취업자 수」의 증감률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2016년 3월 감소율은 -1.1%까지 떨어졌으나 4월 -0.4%로 다소 회복

²⁾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ρ)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매년 1월분 통계 공표(2월말 또는 3월초) 시에는 연간 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월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8만 7천여 명)보다 낮은 86만 5천여 명을 기록하는 등 전체 취업자 수와 마찬가지로 감소세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최근 5개월 평균 -1.3%였으며, 2016년 3월 -3.6%, 4월 -2.5%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심화
 - 1월과 2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였으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상황 악화로 3월 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점에 유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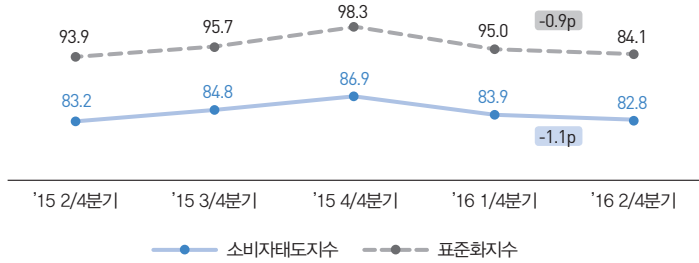
Ⅱ.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2016년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는 2분기 연속 하락

③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 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수, 직업 등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서울의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에 이어 연속 하락

- 2016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③ 기준 94.1로 전(前) 분기보다 0.9p 하락
 - 2016년 1/4분기에 3.3p 하락한데 이어, 2/4분기에도 하락
- 2016년 상반기는 하락세로 마감하였으나 여름휴가, 추석특수 등 하반기 반등 기대
 - 2015년에 소폭 개선되던 경기가 2016년 들어 하락세를 지속
 - 7월 이후 여름휴가, 추석특수 등으로 소비자태도지수는 다소 상승 가능
 - 반면 한국은행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가 올해 5월까지 17개월 연속 이어지고, 수입도 20개월간 감소하는 등 기업경기 악화로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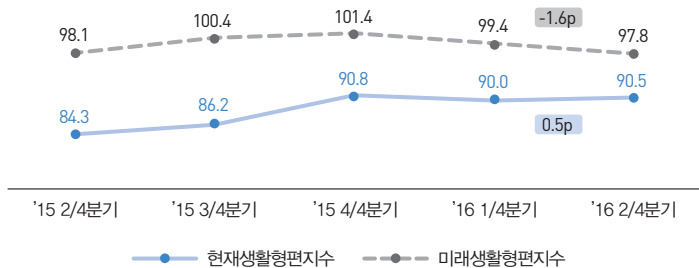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하락세

- 2016년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증가한 90.5이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7.8로 전 분기 대비 1.6p 감소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에 소폭 하락(-0.8p)하였으나, 이번 분기 0.5p 반등에 성공하며 전 분기를 제외한 최근 1년간 상승세 유지
 -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7.8로 전 분기보다 1.6p 하락하며 최근 2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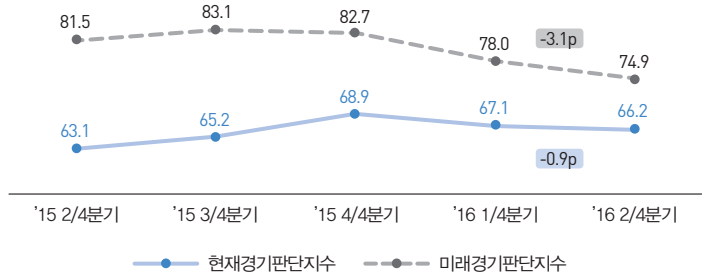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서울의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은 편

- 2016년 2/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p 하락한 66.2를 기록
 - 2015년 상승세이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6년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100)에 크게 미달
- 2016년 2/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74.9로 전 분기보다 3.1p 하락

-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현재경기판단지수」보다 하락 폭이 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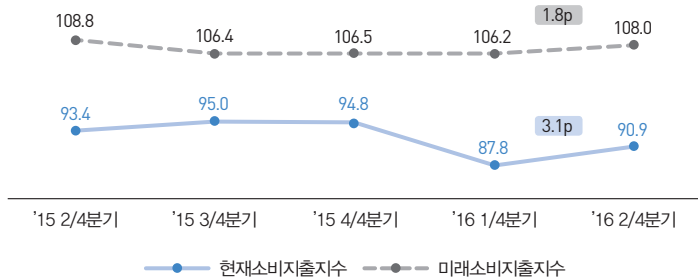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서울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모두 소폭 상승

- 2016년 2/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8.0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1.8p 상승하며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0.9로 전 분기 대비 3.1p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93.4)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
 - 2014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이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큰 폭의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하반기 소비지출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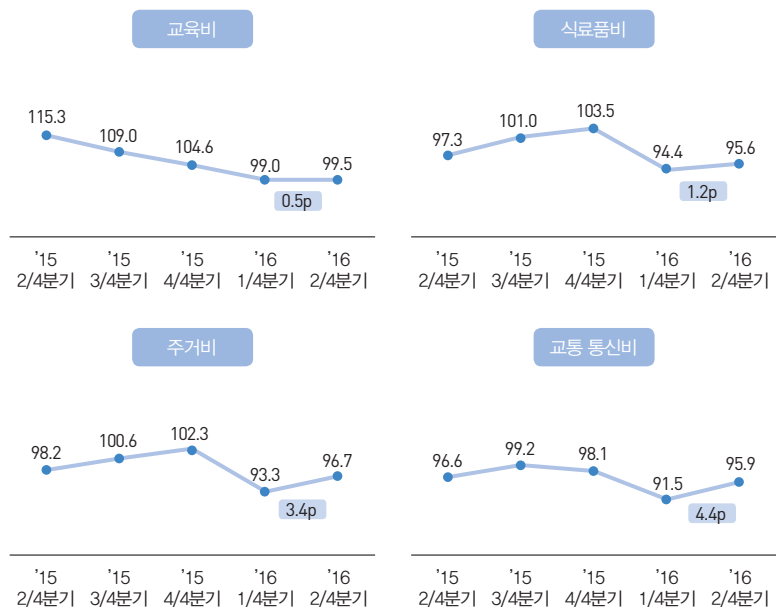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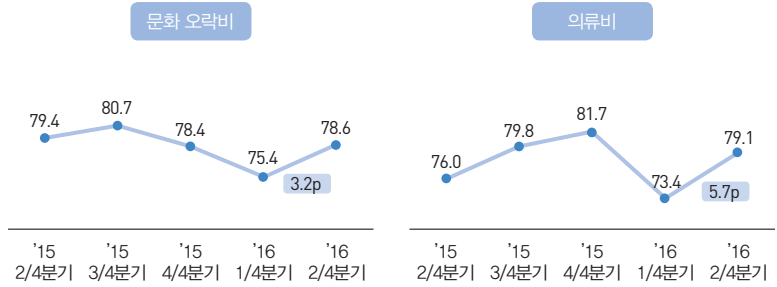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은 각 품목에서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

- ‘교육비’는 전 분기보다 0.5p 상승한 99.5를 기록
 - 하락을 거듭하던 ‘교육비’는 5분기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기준치(100)에 거의 근접
-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모두 90대 중반으로 상승
 - ‘교통/통신비’가 4.4p로 가장 크게 상승한 가운데,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각각 3.4p, 1.2p 상승하는 등 의식주 필수 항목은 모두 기준치(100)에 근접
- ‘의류비’는 79.1로 전 분기(73.4)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전 분기 최하위를 기록하였던 ‘의류비’는 5.7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품목에 비해 크게 낮은 편
- ‘문화오락비’는 78.6으로 전 분기 대비 3.2p 상승하는 데 그치며 ‘의류비’보다 낮은 최하위 차지
 - ‘문화오락비’는 의식주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지출지수가 80을 넘지 못하는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소비 심리가 낮은 것으로 추정
- 2015년까지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등 세 품목은 모두 기준치 100을 웃돌았으나, 2016년 들어 아직 이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
 - 전 품목 모두 전 분기 대비 미래소비지출지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기준치를 상회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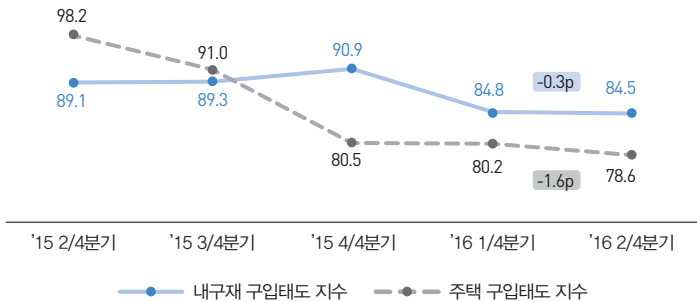




〈그림 8〉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과 주택구입 의사는 지속적으로 저하

- 2016년 2/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하락한 84.5
 - 2016년 1/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며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
-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보다 1.6p 하락하며 5분기 연속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17.6p나 하락한 78.6으로 80대도 붕괴
 -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주택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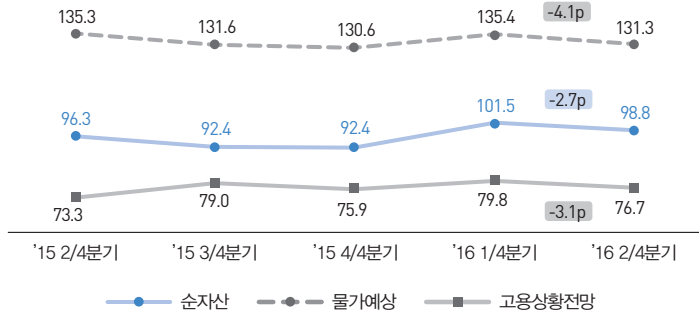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을 비롯해 물가예상과 고용상황전망이 모두 하락

- 2016년 1/4분기 모두 상승하였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4분기 들어 일제히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4.1p 하락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고용상황전망」과 「순자산지수」는 각각 3.1p, 2.7p 하락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자산」과 「고용상황전망」은 상승하였으며, 「물가예상」만 감소
- 「순자산」과 「고용상황전망」은 지난해 동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00 이하이며, 특히 「고용상황전망지수」는 5분기 연속 80 이하로 고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낮은 수준



〈그림 10〉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Ⅲ.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 연말정산과 카드 공제

카드 공제 폐지 시, 카드 사용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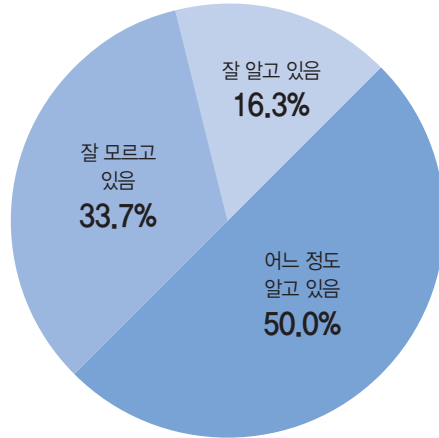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도 폐지^④에 대해 상당수가 인지

-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도 폐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잘 알고 있다’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를 합해 대부분인 66.3%
- ‘잘 모른다’는 응답은 33.7%로 10명 중 6~7명이 카드 공제 제도 폐지에 대해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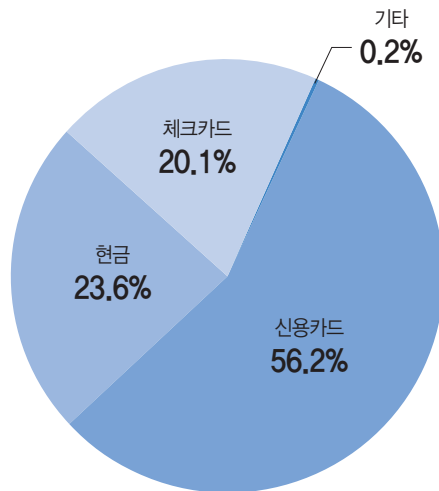
현재 소비지출 시 사용하는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비중이 56.2%로 절반 이상

- 신용카드가 56.2%로 결제수단의 대부분을 차지
- 그다음인 현금 23.6%, 체크카드 20.1% 순이었으며, 기타 상품권·모바일결제·계좌이체 등은 0.2% 수준에 불과

^④ 연말정산 카드 공제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1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림 11〉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도 폐지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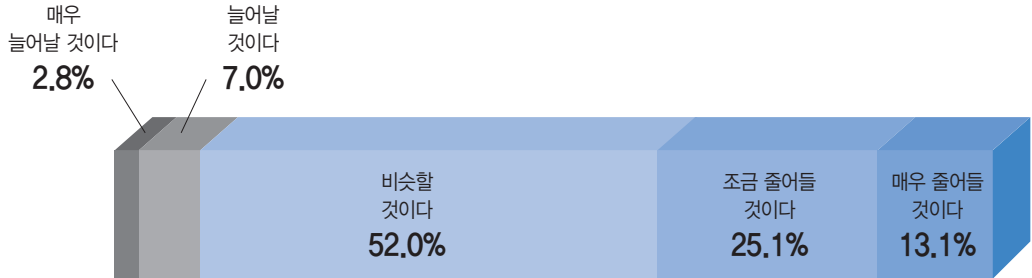


〈그림 12〉 소비지출 방법에 따른 평균 사용 비중

카드 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카드 사용이 줄어들 것이란 응답이 38.2%

- ‘비슷할 것이다’란 응답이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늘어날 것이다’(9.8%)라는 예상보다는 ‘줄어들 것이다’(38.2%)라는 예상이 많아, 카드 사용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
 - 카드 사용이 줄어들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카드 공제가 안 돼서’가 67.0%로 대부분을 차지
 - 카드 사용이 비슷할 것 같은 이유로는 ‘카드 사용의 편리성’이 21.9%, ‘소비 패턴 변동이 없어서’가 18.8%, ‘공제와 상관이 없어서’가 14.3% 등의 순

-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 같은 이유는 '카드 사용의 편리성'이 51.7%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카드 사용 혜택'(16.2%), '공제가 도움 안 돼서'(16.0%) 등도 높은 편



〈그림 13〉 카드 공제 제도 폐지 이후, 카드 사용 정도

카드 공제 폐지 시,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감면 비중 증가'를 기대

-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도를 폐지 시, 이를 대체할 가장 적절한 지원제도로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감면 비중 증가'가 41.8%
 - 그다음은 '세액공제 및 한도금액 상향조정'(29.7%), '종합소득, 근로소득 공제 기준 법개정'(16.6%), '비과세 감면 대상 출입'(10.4%)의 순

